

국제금융의 투기화와 그 후과

김 양 호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자본주의시장을 대상으로 무역과 금융을 비롯한 경제거래를 확대발전시켜나가자면 자본주의시장을 잘 연구하고 그에 맞게 대외경제거래를 자주적립장에서 능동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모든 경제거래는 일정한 리득을 얻기 위하여 진행한다. 그런데 경제거래과정에서 얻는 리득의 크기는 무엇을 어떻게 거래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객관적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경제거래과정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 즉 경제거래과정에는 리득과 손실이 생기게 된다.

일정한 리득을 얻기 위한 경제거래가 다 투기로 되는것은 아니다. 상품생산자가 상품을 생산하여 가치대로 실현하는 경우에 상품생산자는 생산비를 보상하고 리득을 얻었다고 말할수 있다. 만약 상품을 가치이상으로 실현하면 상품생산자는 자기가 실지 지출한 노동보다 더 많은 리득을 얻을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반대로 상품을 가치이하로 실현할 때에는 소득재분배가 반대로 이루어지면서 손실을 본다고 볼수 있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가치로부터 배리되는 조건에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실현하였다고 하여 다 투기로 볼수는 없는것이다.

투기는 폭리를 얻을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위험을 동반하는 경제거래라고 볼수 있다. 다시말하여 정상적인 경제거래에서 얻는 리득에 비하여 훨씬 큰 리득을 얻기 위한 모험적인 경제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투기에서 성공하면 막대한 리득을 얻을수 있지만 실패하면 커다란 손실을 입을수 있다.

경제거래에서 투기가 진행될수 있는 조건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그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자연발생성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김정일전집》 제9권 482페이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경제에서는 경제활동이 자연발생적으로, 무정부적으로 진행되기때문에 투기가 진행될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이 있다. 특히 돈벌이가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되고있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는 투기행위가 더욱 성행하게 된다.

자본주의시장의 모든 거래에서 투기적요소가 있지만 금융거래 특히 국제금융거래에서 투기가 더욱 성행하고있다.

상품거래에 비하여 국제금융거래에서는 투기가 더욱 성행할수 있는 조건이 있다. 상품거래과정에서 변동되는것은 주로 상품의 가격이다. 따라서 상품거래에서 투기는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이나 특이한 생산물들에 대하여 진행된다. 그리고 투기방법도 단순하다.

즉 될수록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최대한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것이다.

그러나 금융거래에서는 투기가 진행될수 있는 조건이 더욱 확대된다.

금융거래에서는 거래대상과 거래방법이 다양하며 특히 거래되는 금융자산들의 가치도 수시로 변동되며 그것도 급격히 변동될수 있다. 그리고 금융거래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품거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비하여 다양하다. 금융거래과정에는 리자률, 환률, 리익배당률 등과 같이 금융거래과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고 경제장성률, 재정수지, 국제수지, 물가수준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요인 또는 간접적요인들도 호상련관속에서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금융거래에서 투기가 성행하게 되는 일반적조건이다. 단순한 경제거래에서 투기를 하기가 힘들지만 복잡할수록 투기경향이 강해진다.

국제금융의 투기화는 자본주의발전의 전과정에 존재하였지만 현시기 더욱 심화되고있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융의 자유화, 증권화, 국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면서 경제의 금융화가 촉진되었다. 또한 금융의 전자화, 정보화는 일반투자자들이 금융거래에 쉽게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으며 특히 장기화된 불경기에는 방대한 과잉화폐자본을 조성하여 투기적금융거래를 확대시켰다.

자본주의경제에서 투기행위가 성행하고있는것은 자본을 생산에 투자하여 복잡한 재생산과정을 거치는것보다 비록 위험은 있지만 폭리를 얻으려는 돈놀이군들이 늘어나 경제가 활기를 띠지 않아도 투기만 잘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는것과 많이 관련된다. 이러한 투기적금융거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따라 계속 확대되며 그것은 자본주의경제의 무정부성과 재생산과정의 기형성을 더욱 첨예화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현시기 국제금융거래에서 투기가 성행하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렬후채, 불량채권 등 신용도가 낮고 투자에 적당치 않은 채권들이 금융시장에서 대량 거래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렬후채, 불량채권은 투자손실위험이 크기때문에 지난날에는 금융시장에서 잘 거래되지 않았으며 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은 그것을 거의 인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렬후채, 불량채권들을 거래하는것은 모험으로 된다. 그러나 오늘날 거대금융독점들은 새로운 거래수법과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교묘한 방법을 고안해내어 그것을 국채 등과 같이 고정된 수익을 가져오는 증권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는 채권으로 만들고있다.

렬후채는 지불순위에서 뒤자리를 차지하고 기업들의 청산시에든 무담보사채가 완전히 청산된 다음에야 반환되기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은 그에 잘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렬후채는 일반채무의 반환후에 상환되는것으로서 기업들에 있어서는 자기 자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있다. 이로부터 기업들은 그것을 많이 발행하려고 한다. 이것은 금융투기업자들에게 있어서 렬후채가 시세조작만 잘하면 폭리를 얻을수 있는 유리한 금융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금융투기업자들에 의하여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인수, 거래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며 투기에 유리하게 시세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렬후채들이 많이 거래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업들은 경영활동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부를 받거나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많이 조달하는데 이것은 기업들이 파산되거나 경

기가 악화될 때에는 채권자들이 반환받기 어렵게 되는 채권 즉 불량채권으로 된다. 끊임 없는 경기변동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언제나 이러한 불량채권들이 생겨난다. 현대자본주의하에서도 대량적인 기업파산과 부동산이나 주식시세의 변동으로 불량채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금융투기업자들은 이러한 불량채권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투기에 리용하여 막대한 리운을 얻고있다. 투기업자들은 국제기업합병 및 매수에서 채권발행이나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 틈을 타서 많은 기관투자자들을 끌어들이거나 저들의 단골거래자인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량채권을 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수료와 매매차액을 얻고있다.

현시기 국제금융거래에서 투기가 성행하고있는것은 다음으로 국제금융시장들에서 파생금융상품들이 대대적으로 류통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원래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자산들의 거래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수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수법들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파생금융상품거래자체가 투기화되고있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소박의 거래는 거래소를 경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직접 상대로 진행하는 거래로서 투기적성격이 강하다. 최근에는 환자시세편차리익과 함께 리자률편차리익을 노리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더욱더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파생금융상품을 특히 투기에 많이 리용하는것은 미국의 거대금융기업들이다.

파생금융상품의 확대는 국제금융시장의 증권화와 함께 투기화를 보여주고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금융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파생금융상품들이 날을 따라 더욱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있다.

선물거래, 교환거래, 선택권거래들과 그것들의 결합형태들인 선물선택권거래, 현선선택권형교환거래 등의 파생금융상품들은 적은 자금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하여 투기적인 리익을 얻을수 있게 하는 유리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선물금융자산거래만 보아도 이것은 앞으로 하게 되는 거래를 해당 시점에서 미리 가격을 결정해놓고 그 가격으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량을 넘겨준다는것을 약속하는 거래로서 현물양도는 거의 없고 계약집행일 혹은 그전에 반대매매를 하여 차액결제로 계약을 청산함으로써 밀천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막대한 리운을 얻을수 있게 되어있다.

현시기 국제금융거래에서 투기가 성행하고있는것은 다음으로 금융투기가 《조직화》되고있는데서도 표현된다.

원래부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확천금으로 자본가로, 부유계층으로 된자들은 례외없이 투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자들이다. 미국의 최대금융재벌들을 비롯한 세계적인 대부호들을 놓고볼 때 정직하게 돈을 번자들은 하나도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하여 떠들지만 독점이 지배하고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는 조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각종 범죄행위들이 확대되면서 《조직화》되고있는것처럼 금융거래에서 투기행위도 《조직화》되고있다.

금융거래에서 투기행위의 《조직화》는 전문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회사, 중개인들이 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는 금융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그 대표적인례로 위험회피기금(헷지기금)을 들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거래를 위험회피거래 또는 헷지거래라고 한다.

헷지기금은 공식적으로는 헷지거래를 주요한 업무로 내세우고있는 기금이다. 다시말하여 일반투자가 및 개인들로부터 금융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해준다는것을 담보로 기금의 형태로 자금을 모아 설립된 전문적인 금융자산관리회사이다.

헷지기금은 1940년대말부터 1960년대초에 걸쳐 미국에서 개인금융자산의 축적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관리를 안전하게 할데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발족하였다.

현재 헷지기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잔고 즉 기금의 자본은 5 000억US\$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제금융투자자들은 최근시기 일반기금을 비롯하여 많은 금융기관들이 헷지기금의 거래수법들을 적극 모방하고있기때문에 이 기금의 기술을 모방하고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운영자본이 수조US\$에 달할것으로 평가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하루에 동원할수 있는 자금이 수억US\$에 불과하지만 헷지기금은 수백억, 지어 1 000억US\$의 자금을 동원할수 있다. 이러한 헷지기금들이 세계적으로 5 000개이상에 달하는것으로 보고있는데 그것의 90%는 미국에 있다.

헷지기금의 중요한 특징은 개별모집형식으로 조직된 투자신탁의 한 종류로서 완전한 자기 책임으로 행동하는 이상 국가의 보호도 간섭도 필요없다는것을 운영철학으로 하고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헷지기금은 단순히 일부 부유한 개인투자자들의 그룹이 아니다. 즉 세계의 일류급은행 및 증권기관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그와의 거래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투기조직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대규모금융기관자체가 헷지기금과 똑같은 투기활동을 자기 스스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헷지기금은 오늘날 자기 본래의 사명과는 달리 금융자산의 가치손실방지가 아니라 금융투기를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헷지기금들의 투기활동에 의하여 오늘 국제금융은 커다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고있다. 헷지기금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제수지, 재정수지, 물가, 리자률, 환률 등 중요경제 및 금융지표들을 일상적으로 주시하고있다. 공격목표가 일단 설정되기만 하면 시장과 증권시장에 방대한 자금을 들이밀어 투기를 감행한다. 헷지기금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내부정보를 미리 탐지함으로써 주식, 채권, 통화 등의 금융자산을 능계 구입하고 비싸게 팔아 폭리를 얻을뿐아니라 허위정보로 거래마감시세를 높여 다음날 거래에서도 막대한 리운을 얻고있다.

미국은 헷지기금을 세계지배전략을 금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척후병》으로, 《하수인》으로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군사적침략에 비하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금융적조작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이것을 적극 리용하고있다.

현시기 국제금융거래에서 투기가 성행하고있는것은 다음으로 투기수법들이 더욱 다양화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국제금융이 확대되는 과정에 금융거래수단과 방법, 금융기술도 발전하면서 금융투기수법도 더욱 발전하고있다. 특히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금융정보화가 추진되면서 금융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투기수법도 더욱 다양화되고있다.

현시기 많이 적용되는 금융투기수법의 하나는 리자률편차리익을 노리고 진행하는 리

자률조작이다. 금융시장에서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규정되는 리자율은 나라에 따라, 금융자산에 따라 다르다.

금융투기업자들은 환자조작, 리자률조작을 비롯한 전통적인 투기수법과 함께 새로운 투기수법들을 끊임없이 고안해내어 적용하고있다. 대표적인 투기수법의 하나가 타인자본리용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레버렛지드로 통용되고있는 이 수법은 자기자금을 담보로 일정한 대부를 받고 다시 원금과 대부받은 자금을 담보로 또다시 새로운 자금대부를 받는 식으로 자기자금의 몇배, 몇십배의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하는것이다.

미국의 핫지기금의 하나인 롱 림 캐피탈 매니지먼트(LTCM)는 파산되기 전에(1998년) 자기자금이 39억 4 800만€정도였는데 타인자본을 리용하여 조달한 자본은 1조 2 337억€에 달하였다.

다른 사람의 자본을 리용하는 거래는 결국 남의 자본을 리용하여 자기자본의 리익률을 높이는 수법인데 이것이 투기업자들에게 가져다주는 리익은 대단히 크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는 타인자본리용시장이라는것도 개설되어있다. 이 시장은 다시 사는것을 조건부로 증권을 매각하고 다시 살 때까지의 기간에 자금을 융통받는 거래가 진행되는 시장으로서 여기에서 타인자본리용으로 투기를 하는 투자자들은 리윤회수율이 높은 증권들을 차례로 즉 국채로부터 민간사채, 주식, 렬후채 순서로 구입하는 거래를 반복하면서 적은 자기자본으로 많은 타인자본을 리용하고있다.

이와 같이 더욱 심화되는 국제금융거래에서 투기행위는 심각한 사회경제적후과를 가져오고있다.

일반적으로 투기는 거품경제현상을 발생시키면서 경제적혼란과 위기를 발생시킨다.

자본주의경제사에서 발생한 거품경제현상들은 중요하게 금융투기행위와 관련되어있다. 1719년 프랑스의 미씨씨피주가거품, 1719년 영국의 남해주가거품, 1837년과 1907년 미국에서의 경제공황, 1929년 10월 미국의 경제공황, 1987년 일본에서의 부동산과 주가거품, 1997년 동남아시아금융위기, 1998년 로씨야금융위기, 20세기말~21세기초 미국에서 일어난 인터넷거품,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주택거품은 중요하게 투기행위들에 의하여 발생한 위기였다.

1990년대와 21세기에 들어와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들은 금융투기업자들에 의하여 일어난 금융위기들이였다. 1997년 동남아시아금융위기나 로씨야금융위기, 21세기에 들어와 아르헨티나금융위기, 브라질금융위기들은 해당 나라들에서 금융정책과 체제가 불안정한것과 함께 투기업자들의 투기행위와도 관련되어있다.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는 금융의존형의 미국경제의 취약성에 그 기초를 두고있지만 금융위기가 일어난 발단과 진행과정을 보면 여기에서도 투기행위가 많이 작용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금융위기는 2007년 미국주택시장에서 주택거품이 붕괴되면서 시작되였다.

지난 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침체의 위기속에서도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이 부단히 상승해왔다. 미국의 로스안젤스에서 보통주택 한채당 가격이 1999년에 17만US\$ 였던것이 2006년에는 44만 7 000US\$로 뛰어올랐다.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에 평균 2배이상 폭등한 결과 주택거품이 형성되였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수많은 주택건설업체들은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주택을 대

대적으로 건설하였고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주택대부회사들은 대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대대적으로 사들이었으며 그것을 다시 주택사용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폭리를 얻었다.

다른 한편 저소득층 주택사용자들은 주택가격이 오른 기회에 대부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 공돈을 벌려고 주택대부를 받는데 열을 올리었다. 그리하여 2006년말당시 저소득층 주택대부잔고도 이미 전체 주택대부시장류동액의 10%를 약간 넘는 13조US\$에 달하였다.

게다가 미국의 대은행들이 주택대부와 관련한 채무를 증권화하여 국내금융시장에 유통시키고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투자가들이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었다. 그리하여 증권시장들에는 주택대부담보증권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채무담보증권 등 증권화 상품들이 파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2007년에 들어와 물가상승, 주택수요감소 등으로 주택거품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살림집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2월 27일 미국경제의 침체와 관련하여 다우존스주가가 전날에 비하여 400US\$나 하락한 후 6월에는 채무담보증권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다.

미국에서 주택수요가 줄어들면서 2007년 9월 주택판매건수가 그 전해에 비해 19%나 감소하여 주택건설업체들은 파잉주택을 처리하지 못하였고 그 연쇄고리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주택을 가지고 투기행위를 하던 회사들과 저소득층 주택사용자들이 주택가격저하로 은행에 막대한 빚을 지고 일시에 망하게 되었다. 2007년 한해동안에만도 상환되지 못한 자금이 전국적으로 약 2 000억US\$에 달하였다.

레이만 브라더즈, 씨티그룹, 메릴린치를 비롯한 미국의 대규모금융기관들이 연이어 파산되었다. 레이만 브라더즈은행은 미국에서 가장 오랜 투자은행으로서 직원수가 2만 6 000여명, 자산이 6 900억US\$였다. 메릴린치는 직원수만 해도 6만명에 달하였으며 세계 40개 나라에서 1조 6 000억US\$의 자산을 운용해왔다. 미국금융기관들이 파산되는 것과 함께 여러 은행들이 일시에 고용축소를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금융위기의 후과는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까지 퍼지고있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자본주의나라 대투자가들이 미국은행들에서 발행, 유통시키는 증권에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었던 판계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금융위기에 말려들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입은 손실액은 1조 4 000억US\$에 달하였다고 한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투기와 협잡, 무질서와 혼란으로 얼룩진 자본주의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